

구봉 송익필 전설의 서사유형과 설화적 의미

이 정 훈 (전북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송구봉 전설의 서사 유형과 의미 |
| 2. 구봉 송익필 생애와 논쟁적 평가 | 5. 결론: 송구봉 전설의 설화적 의미 |
| 3. 구봉 전설 양상과 20개 화소 | |

국문초록

송구봉은 조선 중기 때의 인물로 서얼 출신이지만 禮學에 뛰어났던 인물로, 사계 김장생의 스승으로 존송 받는 인물이다. 하지만 송구봉의 삶은 명문자제로 태어난 환경과 정치적 변동에 따른 ‘還賤’을 겪는 시련의 연속이었다. 또한 그가 살았던 시대는 당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사무옥, 기축옥사 등의 정치적 환란이 있었다. 송구봉 역시 서인이었던 이이와 성혼과의 지속적인 우정을 나누었고 당쟁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본고는 조선시대 실존 인물이었던 송구봉 전설의 서사 유형을 고찰하고 구봉전설의 설화적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송구봉 이야기 40여편을 분석하여 20개의 화소와 5개 서사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송구봉 전설을 관통하는 서사 유형은 ‘양반과 구봉의 교류-주변 양반들의 불만-송구봉 직접대면과 압도(對)이다. 이 기본형을 중심으로 송구봉의 위대함을 강화시켜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17S1A5B8057729) 이 논문은 2016년 2회 송구봉 선양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대폭 수정한 것임.

주는 일화(喪), 송구봉의 원한을 악화시켜주는 일화(食), 송구봉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일화(婚)으로 확장된다. 기본형과 확장형에 이어 종합형은 임란 활약담이 결합된 것이다. 실제 송구봉은 임란에 유배상태였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설 속의 송구봉은 임란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이순신에게 거북선을 알려줄 정도로 큰 활약을 한다. 송구봉을 제대로 등용했다면 임란이 수개월 만에 끝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도 전승되고 있다. 정치적 수완을 가진 송구봉은 설화 속에서 시종일관 ‘노비’로 활약한다.

송구봉은 ‘노비’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양반들과 대등하게 교류하며 그들을 ‘눈빛’(眼)과 카리스마(對)로 제압한 ‘영웅’이다. 송구봉의 활약은 이여송을 굴복시키며 울곡과 이순신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또 기축옥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진안의 전설에도 송구봉의 위엄은 여전히 전승되고 있다. 당쟁사의 한 획을 그었던 송구봉에 대한 평가는 설화 속에서 정치적 희생양의 면모로 해석된다. 그와 교류했던 이이나 성혼, 정철의 세속적 영달에 비하면, 송구봉은 기축옥사로 인해 질곡의 세월을 견딘 약자였기 때문이다. 설화에서 송구봉 전설의 의미는 기존의 기록에서 감수해야 했던 당파적 공과를 떠나서 민중들은 그를 현실 권력에서 배제된 위대한 약자의 전형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송구봉 전설을 통해 기존의 평가를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필터가 되길 바란다.

주제어 : 송구봉, 울곡, 성혼, 이여송, 거북선, 서사유형, 송미령, 운장산, 진안, 정여립, 서자, 당쟁, 기축옥사, 서인

1. 서론

송구봉(1534~1599)의 삶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삶은 조선 왕조의 대전환기를 통과하고 있기에 사학적 고찰 대상이 되며 그가 남긴 산문과 한시는 한국 사상과 한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송구봉에 관한 연구는 예학과 도학 사상에 대한 접근과 三奴의 名人 중의 한 사람으로 언급되며 시세계에 집중되어 있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송구봉의 삶에 대한 연구는 1999년에 간행된 『구봉 송익필』이 처음이다.¹⁾ 이종호는 한국 명인의 삶과 사상 시리즈로 구봉 송익필의 삶을 정리하였다. 이 책의 부제는 타고난 명예를 잃어지고 산 철학자'이다. 송구봉의 전기적 사실을 정리하여 윤곽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를 지닌다. 이후 2010년에는 『문제적 인물 송익필로 읽는 당쟁의 역사, 조선의 숨은 왕』이라는 책이 출판된다. 이 책은 이한우가 지은 것으로, 조선의 당쟁사 속에서 송구봉의 삶과 운명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종호의 저술이 송구봉의 삶에 대한 기존 사료를 집대성하여 재구성한 것이라면, 이한우는 '당쟁'의 역사 속에서 송구봉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한우의 결론은 송구봉이 '조선의 숨은 왕'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2015년에는 구봉 문화 학술원이 설립되어 송구봉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학술총서도 간행하였다.²⁾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송구봉 전설에 관한 연구는 황인덕의 논문이 유일하다.³⁾ 황인덕은 송구봉에 관한 문헌, 구전, 인터넷 자료를 총망라하여 크게 일화류, 허구적 전설, 지역전설 시일화 등으로 나누었다. 또 황인덕은 송구봉 전설의 기본형으로 7가지 설화를 제시하며 허구적 전설에 반영된 송구

1) 이종호, 『구봉송익필』, 일지사, 1999.

2) <http://www.gubong.org/> 2015년 구봉문화학술원이 설립되고 제1회 학술대회도 개최하였다. 철학에서는 구봉 송익필의 도학사상에 관한 박사학위가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김창경, 구봉 송익필의 도학사상, 책미래, 2014)

3) 황인덕, 「전설로 구현된 송구봉의 인물상과 그 의의」, 인문학연구101,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봉의 면모를 영웅을 희구하는 상민들의 희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본고는 황인덕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당쟁의 서막을 여는 시대에 활약 했던 송익필에 관한 역사적 기록과 설화적 반영양상을 유형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송익필의 생애와 역사적 평가는 문제적 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 특히 동서분당의 현장에서 벌어진 ‘기축옥사’의 배후인물로 지목받으면서 현재까지도 송익필에 대한 평가는 문제적 상황에 놓여있다. 본격적으로 송익필의 생애와 현재적 논란을 정리하며 논의를 시작해보자.

2. 구봉 송익필의 생애와 논쟁적 평가

송구봉의 생애에 대한 기본적 사항은 황의동에 의해서 ‘역경 속의 진유 구봉 송익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구봉 송익필은 18세기 조선조의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율곡 이이(1536~1584), 우계 성혼(1535~1598)과 더불어 기호유학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그의 자는 운장, 호는 구봉, 본관은 여산인데, 서울에서 태어났고 경기도 파주, 고양과 충남 당진을 배경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부친 송사련과 어머니 연일정씨 사이에서 4남 1녀 가운데 3남으로 태어났는데, 인필 부필은 형이고 한필은 아우가 된다. 구봉은 신분문제로 불우한 역경 속에서 살았고, 태어난 제주와 웅지를 펴보지도 못한 불운의 학자였다. 이제 잠깐 그의 신분 문제와 이로 인한 역경의 삶에 대해 소개하기로 하자. 구봉의 조부 송린은 종종 때 좌의정을 지낸 안당의 서매인 순흥 안씨 감정과 결혼하여 송사련을 낳았다. 구봉의 할머니인 감정은 안돈후의 첩 증금의 딸이었기 때문에 결국 서얼의 신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후 송린은 잡작인 직장을 지내고 관상감 판관에까지 올랐으며, 송사련도 외가인 안씨 집안의 도움으로 관상감 판관을 지내고 안씨 문중의 크고 작은 일을 맡아보았다.

그런데 1521년 구봉의 아버지 송사련은 안당의 아들 안처겸 등이 당시의 정권 실세인 남곤, 심정 등을 제거하려 도모한다고 고발하여, 안당, 안처겸

등 안씨 집안과 종실 시산부정 이정숙 및 권석, 안정, 이충건 등 수 십명의 선비들이 희생을 당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신사무옥이다. 그 공로로 송사련은 서얼출신이면서도 정삼품 당상관이 되어 출세하였고, 반면 송사련의 외가인 안씨 집안은 일순에 몰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1586년 송사련의 무고가 밝혀지고, 간신들은 물러나고 안당의 신원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이미 죽은 송사련의 관직이 삭탈되고 그 집안은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안씨 집안에서는 송익필까지 노비로 삼겠다고 하자, 53세의 송익필은 은둔과 도피생활을 하게 되어 정철, 김장생, 이산해 등 지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간신히 연명하게 되었다.

1590년 구속에서 풀려나고 그 이듬해 동생 송한필과 함께 자수하고, 평안도 희천으로 유배되었다. 1593년 유배에서 풀려나 1596년 충청도 당진 먼 천 마양촌에 정착하여 살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1599년(선조32) 66세로 세상을 떠나 당진 북면 원당동에 묻혔다.⁴⁾

송익필의 개인사적 운명은 신사무옥을 주도한 아버지의 업보를 감당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송익필이 사대부적 소양을 습득하게 된 것도 아버지의 승부수로 가능했지만, 정치적 변동 때문에 노비로 전락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기축옥사를 배경으로 동인과 서인이 갈등을 일으킬 때, 송익필은 서인의 모사꾼으로 당쟁을 주도한 자로 알려진다.

동인이 누구보다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송익필이었을 것이다. 우선 양반이 못 되는 송의 신분이 그들의 비위를 본능적으로 건드렸을 게 틀림없다..... 스승의 친구일 뿐 아니라 학문이 깊고 문장에도 능한 송익필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 중 일부에서는 송을 '서인의 모주'로 보기도 했으므로 이러한 생각은 더욱 힘을 얻을 추세에 있었는데... 정치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 이이며 성혼 등에게 오랫동안 조언을 해온 송익필이다.⁵⁾

4) 황의동, 「역경 속의 진유 구봉 송익필」, 『잊혀진 유학자 구봉 송익필의 학문과 사상』, 구봉문화학술원 편저, 책미래, 2016, 13~15면.

5) 이한우, 『조선의 숨은 왕』, 해냄, 2010. 150면.

송익필은 비록 종의 신분으로 떨어졌지만 사대부적 환경에서 자란 인물이다. 그는 예학의 종주인 김장생의 스승이었다. 그러나 그가 신분적 문제로 추노당하며 유배를 당하는 곤경에 빠졌을 때 기축옥사가 벌어졌다. 기축옥사는 동인의 몰락을 가져온 사건으로, 정여립의 모반이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런데 정여립의 활동지였던 전북 지역 진안 운장산이 송익필의 자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전설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당파적 평가가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 운장산과 운장(송익필의 호)의 연관은 1990년도에 간행된 『전설지』에서 처음으로 보고된다. 제보자는 진안군 부귀면에 사는 국○성(당시 56세)이다.

산에 대한 전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사라는 절이 있었던 곳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오성대가 있는데 이 오성대는 조선조 중기 유학자였던 송익필이 한 때 은거했던 곳이라 전해오고 있다. 익필의 자는 운장이요, 호는 구봉이며, 시호는 문경이며 본관은 여산이니 사련의 아들이다. 일찍이 이율곡, 우계 등과 사귀어 성리에 밝았고, 예학에 정통하고 시문에 능하여 八문장가 중 제 일인이라 할 만큼 이름이 높았다. 김장생, 정엽과 같은 대학자를 배출하여 조선 예학의 체계를 잡은 자가 곧 운장이었기 때문에 주술산 또는 구절산 등으로 불려오던 산 이름까지도 이후로부터 ‘운장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라 한다.⁶⁾

이후 1992년에 나온 『진안군사』에서도 운장산의 오성대가 중종 때의 서출 성리학자 송익필이 은거하여 명칭이 생겼다고 적고 있다.⁷⁾ 이후 완주-진안의 자연환경에 관한 환경부 기록과 전북의 산에 관한 기록을 보면 앞의 기록을 반복적으로 요약하고 있다.⁸⁾ 하지만 운장산과 송구봉의 연관성은 2003

6) 전라북도, 『전설지』, 1990, 198면.

7) 진안군, 『진안군사』, 1992, 853~854면

8) 운장산은 옛날에 구절산이라 부르던 산이었으나 조선 초기에 눈에서 나는 광채 때문에 운장산이라 고쳐 불렀다고 한다(완주-진안의 자연환경, 환경부, 1998, 면) 옛날 구절산이었으나 조선 초기에는 눈에서 광채 때문에 운장산이라 고쳐 불렀다.(노승구, 『전북의 산500』, 신아, 2003)

년에 간행된 『지위진 이름 정여립』에서 공식적으로 부정 당한다.⁹⁾ 이 책은 정여립 사건을 재조명하며 기축옥사를 ‘조선조의 광주사태’로 명명한 대중역사서이다. 정여립의 혁명적 사상이나 대동계 조직, 모반의 실상 등은 역사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사관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송익필의 행적에 대한 평가도 나뉜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송구봉은 개인사, 당쟁, 지역감정의 측면에서도 여전히 논쟁적인 인물이다. 송구봉 전설은 인터넷을 통해 조선시대의 당쟁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여러 논자들의 정치적 입장을 통과하여 재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논쟁적 인물로 전승되고 있는 송구봉 전설을 분석하여 서사 유형을 분석하려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화적 세계에서 송구봉 전설이 지니고 있는 주제 의식뿐만 아니라 송구봉에 관한 논쟁적 요소에 대한 설화적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3. 구봉송익필 전설 양상과 20개 화소

설화는 자발적이며 무의식적 선택에 의한 기록이다. 하지만 구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이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승된다. 언중이 무엇을 선택하여 의미 부여를 하는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정보화 시대에서 설화의 채록과 분석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검증’의 부담에서 자유로운 ‘말(이야기)’의 전파력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화의 특성은 역사적 인물의 전설에서는 또 다른 국면을 파생 시킨다. 문서화된, 기록으로 전하는 역사적 자료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설화’적 사실은 史를 기초로 새로운 事實을 생성해낼 만큼 자의적인 동시에 집단적 인식 체계를

9) 대대로 주술이라는 소박하지만 뚝심있는 이름을 갖고 있던 운장산이 언제부터인지 연고조차 없는 송익필의 호도 아닌 자를 간판으로 걸게 되었으며, 오성대, 서봉인 독재봉에 송익필의 전설까지 심어주었다. 우리 땅 어디에도 이렇게 1000M 더 되고, 한 도의 가운데 있는 것 중 가장 높은 산에 한 사람의 자를 붙인 예는 없다.(신정일, 『지위진 이름 정여립』, 가람기획, 2003, 268-269면)

드러내 준다. 설화로 전해지는 역사적 인물 전설은 당대적 현실이 지나가면서 개인적이고 특수한 상황은 지워지고,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핵심적인 의미만이 남게 된다. 역사적 인물은 설화로 전해지면서 서사적 가치가 있는 화소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설화 속 인물과 역사적 인물의 관계는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들며 인식론적 필터로 걸리지며 재생산되는 것이다.

인물전설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록된 역사와 구전된 이야기를 모두 살펴야 한다. 인물의 비중이 클수록 역사적 기록은 많이 축적되었지만, 당대의 지위와 명예가 있다고 해서 설화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설화의 언중이 기념하거나 기억해주는 인물은 ‘기억될 만한 자질’을 간직해야만 ‘기억’된다. 그리고 설화의 언중에게 기억될 만한 자질은 주관적이며 상황에 따라 변한다. 이것은 무수히 많은 언중이 스스로 기억하고 싶은 자질들만 기억하며,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은연중에 골라내서 전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설화로 전해지는 인물들은 무수한 일리들이 구성하는 그 어떤 ‘가치’를 구현하는 대상들이다.

송구봉 자료는 황인덕 교수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대략 24여 편이다. 본고에서는 선행 논문에서 제시된 자료와 운장산 오성대 전설을 포함한 2014년 설화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음은 송구봉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문기록과 인터넷 자료를 망라하여 화소를 정리한 표다.

한문기록	구전전승		인터넷
對	1	對	評c
婚+下+評a	2	對+評a	일본왜장
評a+對	3	對+喪	이여송제압담
喪+下+婚+評b+對	4	이여송	거북선
評d+婚+困+食+墓 碑	5	眼+著述+食+短縮談+거북선+婚+中	거북선
婚+食+喪	6	評c +對+거북선+終	거북선
詩話	7	이여송제압담	胎夢
詩話+困	8	對+喪	出生
詩話	9	終	사후 還生(吳)

	10	眼		
	11	對+婚+喪		
	12	對+喪		
	13	眼+(中+對+宋後)		
	14	(墓碑)+對+喪+評d		
	15	評c+眼+胎夢	2001	
	16	喪	-	
	17	對+食+便紙		
	18	胎夢+對+眼	2014	
	19	(對+中+宋後)		
	20	倭將(吳)		
	21	兒話		
	22	對+便紙		

위의 도표에서 통해서 송구봉 전설의 유형이 문헌설화에서부터 인터넷까지 골고루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담류의 한문기록이나 송시열이 쓴 ‘귀봉선생송공묘갈’에서도 서고청의 평가, 지위 고하를 초월한 대등한 처세, 직접 대면하면 감복하게 된 일화 등이 언급되고 있다. 송구봉 전설은 기록과 구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문 문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송구봉의 태생적 운명과 굴곡(困)을 보다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고 이러한 역경 속에서 빛나는 ‘詩’ 세계에 대한 가치가 강조된다. 송구봉이 ‘古道’를 지키 지위에 상관없이 사대부의 호를 부른 일화에 대한 양반층의 인식도 언급되고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 자료를 본다면 이순신과 임진왜란 이야기에 연결되어 송구봉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송구봉이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 제대로 기용됐다면 임란의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역사적 시련에 대한 ‘假定’과 민중의 소망이 반영된 소재로 언급되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현재적 연관성이 높은 자료들이 우선적으로 업로드되기 때문에, 시의성이 높은 이순신, 율곡, 거북선, 임진왜란 등의 주제어와 연결되어 언급되고 있다.

설화 자료는 는 문헌기록과 인터넷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송구봉 설화는 문헌기록이 충실히 반영되면서도 설화적 상상력으로 극대화되거나 언급들의 평가에 의해 새롭게 변형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담한 영웅, 송구봉

이러는 특성은 서사적 흐름에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문헌기록에서 중시된 굴곡진 삶과 환천당한 사연은 대거 생략되어 있지만, 설화 속의 송구봉은 ‘노비’이지만 구국적 영웅으로까지 추앙되고 있다. 송구봉 설화의 전모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전설을 구성하는 20개의 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화소는 송구봉 전설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① 胎夢 : 송구봉의 비상한 태몽과 종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 배경
② 對 : 율곡과 구봉의 교류-율곡아들의 불만-직접대면과 압도-(율곡의 해석)
③ 喪 : 구봉의 모친 상-銘旌의 문구 고민-율곡이 노비라고 씌-구봉수용
④ 食 : 율곡의 집에 방문-아들에게 식사대접-잡곡밥을 보고 돌아감
⑤ 婚 : 송구봉이 율곡에게 혼인 제안을 함 -율곡이 거절함
⑥ 便紙 : 율곡 아들이 목숨을 건진 율곡의 백지편지
⑦ 中 : 중국으로 망명함
⑧ 宋後 : 중국의 주석 부인이 송구봉의 후손임
⑨ 終 :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음, 도포꾼 때문에 죽게 됨
⑩ 眼 : 구봉의 안광에 굴복한 임금 眼 : 안광이 밝아 역적으로 몰리다 眼 : 율곡이 찾아와 구봉의 안광에 놀라 허리를 굽힘
⑪ 이어송제압담 : 송구봉이 이어송 초청-술대접-이어송 부인 육보임-조선에서 물러감
⑫ 단축담 : 율곡을 나귀에 태워 금강산에 가서 임란의 기한을 줄인다는 다짐 반 아오게 함
⑬ 거북선 : 율곡에게 딸의 배행 맡김-율곡이 청년을 만남-청년과 함께 금강산 죽림처사 방문-거북선 도면 획득
⑭ 倭將 : 붓으로 왜장을 물리친 송구봉의 武術
⑮ 墓碑 : 선비들이 당진에 묘비세움
⑯ 評價 a. 서고청이 제갈량과 비슷하다 평가 b. 오만함(자신을 낮추지 않고 고도를 지킴) c. 임란 기간을 줄임 d. 무술을 한다는 말이 있음
⑰ 兒話 : 어린 구봉이 복숭아 나무 논쟁을 이긴 일화
⑱ 困 : 안씨 집안과의 숙원에 따른 구봉의 역경에 대한 이야기

①9 下 : 사대부들과 지위고하를 막론한 사귀
②0 詩話 : 송구봉 시에 얽힌 이야기

4. 송구봉 전설의 서사유형과 의미

전설하였듯이 설화는 인중들이 자발적으로 ‘기억될 만한 자질’을 ‘기억’하여 전달하는 문학이다. 특히 역사적 인물설화는 검증을 허용하는 역사적 사실 전달 기능과 전승 주체의 욕망이 투영된 문학적 변용을 거치며 존재한다. 위에 열거한 송구봉 설화 역시 문헌으로 전해오는 이야기가 ‘구어’의 현장에 반영된 상태이다. 그리고 다양한 이본에서도 핵심적으로 전달되는 주제화소도 내재되어 있다. 송구봉 전설의 서사유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형	對		송구봉의 실체의 위력 - 압도적 카리스마		
확장형	1유형	對	+ 喪	송구봉의 위대함-지행합일의 인격	강화
	2유형	對	+ 食 (+便紙)	송구봉의 원한	악화
	3유형	對	+ 婚 (+中·終+宋後)	송구봉의 비참함	부각
종합형	眼+(對+食)+短縮談:거북선 +(婚)+中		송구봉의 업적과 좌절		

4.1 기본형 - 對 : 직접대면과 압도

송구봉 설화의 기본형은 양반과 구봉의 신분을 초월한 교류-양반 지인들의 불만-송구봉 직접대면과 압도-(송구봉 행동에 대한 해석으로 구성된다. 설화 속에서 ‘노비’인 송구봉은 교제하는 사대부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율곡 이이, 사계 성혼이다. 이들은 송구봉의 진면목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주변의 가족들은 그가 미천한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와의 교제를 못마땅해한다. 이에 송구봉의 양반친구들은 송구봉과 그들이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한다. 그들은 송구봉의 위엄에 놀려 기를 못 편다. 이후 그의 친구들이 무지한 자들에게 송구봉과의 문답의 의미를 해석해 준다. 실제 송구봉은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송구봉은 당상관인 부친을 둔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났다. 물론 외할머니가 노비였던 것은 사실이다.¹⁰⁾ 아버지 송사륜은 친족을 역모로 밀고한 덕으로 당상관까지 신분상승을 이루었다. 아버지의 신분상승을 위한 과감한 시도 덕분에 송구봉은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는 25세에 정치적 이유로 과거를 볼 수 없는 ‘停擧’를 당하고, 53세에는 정치적인 견제 속에서 아버지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환천’당해 추노당한다. 그의 임종이 66세인 것을 보아 인생의 말년에 환천의 고초와 이산의 슬픔을 겪은 것이지만 자신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절망감과 울분은 원죄처럼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설화의 언중은 아버지의 허물을 대신 감당했던 송구봉의 ‘운명’을 선택했다.

각 편에 주조를 이루는 것은 이러한 곡절은 생략되어 있다. 설화의 언중은 그 후 1910년에 순종 때 문경의 시호를 받고 규장각제학으로 추증된 사실은 기억하지 않는다. 설화 속에서는 노비인 송구봉이 중요하다. 누구보다도 양반으로서의 자질과 정체성을 체득하며 성장했지만, 죽은 아버지의 죄과를 말년에 치러내야 하는 송구봉의 인생은 아기 장수의 좌절과 닳아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송구봉은 자신의 신분을 선택할 수가 없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버지를 골라 태어나거나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내린 아버지의 결단에 관여할 수도 없다. ‘노비’라는 신분은 모든 인간이 안고 사는 태생적 한계를 의미한다. 태생적 신분은 자신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도, 개입할 수도 없는 완벽한 ‘타자’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¹¹⁾ 그리고 노비출신

10) 송익필 가계도를 보면 순흥 안씨 집안의 안돈후의 비첩이 송익필의 증조할머니다. 이후 안당집안에 송인이 중금의 딸인 감정과 결혼하여 송사륜을 낳았다. 중금과 감정이 모두 친인이다.(이한우, 『조선의 숨은 왕』, 해냄, 2010. 171쪽)

11) 송구봉이 쓴 ‘求在我者無不足, 求在外者何能足(足不足)’이라는 시구에서 내게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의 의미를 적용시켰을 때, ‘노비’신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자신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노비는 밖(사회조직)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족할 수가 없지만, 도학과 예학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를

이라는 조건과 그의 능력은 극적으로 대조되어 부각된다. 이러한 극적인 문학적 설정에 송구봉의 사대부적 소양과 지배계층으로서의 계급성은 유용하지 않은 정보다.

그러나 단순히 ‘노비’라는 사실이 설화적 자질이 될 수 없다. 賤生·蔑視의 의미짜이 威嚴·神異의 아우라는 입을 때 설화는 생명력을 얻는다. ‘노비’출신은 의지적 영역이 아니라 사회조직에서 강제된 것이자 고정적인 의미인 반면, 위엄과 신이함은 개별적이고 단독적인 자질이기 때문이다. 구봉 설화에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송구봉에 대한 편견과 탄복은 바로 노비라는 편견을 송구봉 개별적인 위엄과 신이함으로 양반을 굴복시킨 이야기인 셈이다. 역사적인 사실에서는 양반친구들과의 교제는 양반집안에서 태어난 송구봉의 신분적 조건이지만, 설화 속에서는 賤生 노비가 뛰어나서 고명한 율곡과 성혼, 홍가신과 대등하게 교류하고, 이산해를 ‘下待’할 수 있는 대범한 인물로 전환된다. 송구봉을 직접대면 할수록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 카리스마는 그의 운명적 비장함과 위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다.

4.2 확장형의 세 갈래

확장형은 세 갈래로 진행된다. 송구봉의 위대함을 강화시켜주는 방향(對+喪), 송구봉의 원한을 강조하는 방향(對+食), 송구봉의 좌절을 부각시켜 주는 (對+婚)이다. 송구봉의 위대함을 직접 대면해서 자발적으로 탄복하지만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유형이다.

4.2.1. 지행합일의 위대함: 對+喪 - 구봉의 모친의 명정을 율곡이 작성하다.

송구봉의 모친이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설화에서는 모친의 명정

수 있는 나만의 능력이다.

쓰기를 두고 벌어진 이야기가 언급된다. 송구봉의 모친이 죽자 명정을 쓰는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노비의 몸에서 태어난 송구봉의 출신 문제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賤生이라는 모순적 자질은 여기서도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야기한다. 비록 관료로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학식과 재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내고 있었다. 그러나 송구봉 가족사의 진말도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친의 명정을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대부분의 측근들이 송구봉의 체면을 생각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었다. 송구봉은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율곡을 지목하고 있다. 율곡과 구봉은 이미 율곡의 서모의 위치에 대한 논쟁을 벌이며 견해 차이를 확인할 정도로 학문적 친구였다.¹²⁾

송구봉 모친 명정 일화는 율곡과 구봉의 막연한 교우관계의 실제이기도 하다. 구봉이 “명정을 쓸 양반은 이따 오시니라!”라는 말에는 자신의 개인사적 약점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율곡밖에 없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구봉 역시 율곡의 서모에 대한 인정과 금강산으로의 출가 등의 개인적인 고뇌를 이해하고 있었다. 율곡은 구봉의 끈은 성품(直)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실하게 그의 출신을 밝히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송구봉 모친 명정 일화 역시 핵심이 되는 사건은 송구봉이 ‘노비’출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화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약점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구봉의 태도는 그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일화다.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송구봉의 사상의 핵심으로 ‘直’의 수양은 강조되고 있다.

송구봉에게 직은 ‘올바르지 않은 정이 나오는 것을 근원적으로 의에 의하

12) 제례에서의 서모의 위치논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송구봉은 예서에 규정이 없는데도 서모의 역할을 위상을 고려하여 인정상 서모의 위치를 주부 앞에 세우려는 율곡의 입장에는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율곡이 비교적 인정을 중요시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경향이었다. 그의 예학이 철저히 명분론적 입장에 서 있었음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그것은 그가 당시의 예절서의 문란을 중법적 정통론으로 극복하고자 한 예치적 의식의 소산이 아니었다 한다. (한기범, 『구봉 송익필의 예학사상』, 상계서. 199쪽)

여 막아야 한다는 실천적 의지’(성태용: 2011)와 통한다. 구봉은 조선 예학의 종주 김장생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다. 구봉이 정통한 예학은 형식을 통해 내면의 올바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구봉이 자신의 어머니를 장례를 치르며 명정을 쓰는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현달한 사대부가의 여인이었다면 고민스러울 것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버지 송사린의 밑고로 이룩한 신분상승이 지니고 있는 개인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의 철학과 삶의 핵심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설화에서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구봉의 처지를 먼저 배려하고 미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때 구봉은 율곡을 기다려 외할머니가 천출(私婢莫德之極)이었음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구봉이 천생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공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침묵이나 회피의 수단을 간구하려고 했다면 가능한 일이었다.

설화를 통해서 구봉은 천생이지만 자신의 태생적 한계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조롱하거나 타자화시킬 수 없는 것이 人之常情이다. 구봉이 노비혈통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기 운명과 현실을 냉철하게 수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송익필은 율곡의 죽음 이후 추노를 당했을 때, 동인인 이산해의 회유를 거절한 일화가 있다. 율곡을 배신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회유였다. ‘노비’출신이어서 겪어야 했던 정거, 소송과 체포, 환천과 추노 등의 고통을 당했지만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구봉의 마음 경영은 이미 사적 감정을 벗어난 大儒의 면모를 지닌다. 그리고 대유로서의 근저에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초연함이 있다.

4.2.2. 송구봉의 우월함 : 對+食(+便紙) — 율곡 아들의 생사를 결정하다.

기본형인 ‘직접 대면과 압도’적 상황과 점심대접화소가 결합된 경우다. 2009년과 2014년에 채록된 유형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율곡의 아들이 송구봉을 직접 대면하여 감복했지만 짐심상을 무례하게 대접하였다. 둘째, 송구봉이 이를 패심하게 여겨 징치하려고 했다. 셋째, 율곡이 미리 알아서 죽기 직전에 백지편지를 써서 아들의 위기를 구해준다. 이 유형에 드러난 송구봉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감정적이며 단호하다. 율곡은 조선유학의 지명도에 비하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진전하는 匹夫로 그려진다. 율곡의 아들이 임진왜란에 참여하여 송구봉 지휘 하에 있으면서 결정적인 군량미 수송 문제로 過誤를 범한다. 율곡은 역사적 기록처럼 임란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다. 임진왜란에 송구봉 역시 유배 상태였기 때문에 설화 속에서의 활약은 불가능하다. 율곡의 아들의 방자한 태도는 송구봉 설화에서 때로는 우계나 홍경신의 아우 등으로 대치되지만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율곡과 율곡의 아들 이야기다. 율곡은 9번 과거에 응시하여 9번 모두 장원을 차지한 ‘구도장원공’이지만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이 없어서 서출로 가계를 이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천재이자 기재이지만 조선시대 상황에서 후사를 잇지 못한 결핍을 지닌 인물인 것이다.

설화 속에 등장하는 율곡, 율곡의 아들, 송구봉의 임란 활약담은 모두 설화적 상상력으로 확장된 이야기다. 설화 속에서 서출인 율곡의 아들은 서출인 송구봉을 업신여긴다. 송구봉이 ‘對+喪’ 유형을 통해서 자신의 어머니의 신분을 ‘私婢’나 ‘奴婢’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천명하는 태도와 비교된다. 송구봉이 지키는 ‘禮’는 허식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實’을 지키는 것이다.

송구봉이 간파한 율곡 아들의 허점과 무능력은 곧 화를 부르지만, 율곡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율곡은 십만양병설을 주장하며 임란을 대비했던 것과 같이, 백지 간찰을 써서 아들의 목숨을 구한다. 송구봉의 활약은 율곡의 위대함을 넘어서고 있다. 역사적 기록에서 율곡의 위대함과 천재성은 기억되고 있지만, 설화의 현장에서는 송구봉이 율곡과 그의 아들의 허물을 ‘용서’해주는 인물로 전승된다.

4.2.3. 신분제의 굴곡에 갇힌 송구봉 : 對 +婚(+中·終+宋後) - 율곡의 딸과 통혼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하다.

송구봉과 우계 성혼, 율곡 이이의 교유는 막역하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한다.¹³⁾ 구봉 설화에서도 율곡과의 일화가 다수 전해진다. 송구봉은 예학에 정통하였지만 현실 정치에 관심을 많았다.¹⁴⁾ 하지만 송구봉은 25세에 별시에 응시해서 합격했지만 서얼이라는 이유로 停擧당한다. 부친의 밑고로 양반이 되었지만 송구봉의 성장 환경이 명문 사대부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입신양명으로 현달을 꿈꾸던 20대 청년에게 다가온 정거는 이후 송구봉의 삶을 규정짓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미 도와 의리로 교우를 나누던 친구들은 정계에 진출해서 자신의 경륜을 펼칠 기회를 얻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 송구봉에게 율곡과 정철 등은 사회적 자아라고 볼 수 있다. 그가 기축옥사에서 서인의 ‘謀主’라는 악명을 얻은 것도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태생적 질곡에 갇혔으면서도 그의 환경과 교제 범위는 양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송구봉 설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친구는 ‘율곡’이다. 송구봉의 통혼 요청과 율곡의 거절, 송구봉의 실망감 표현이 주된 내용이다.

설화 속 송구봉이 율곡의 딸을 며느리로 삼겠다고 요청하는 이유는 결혼

13) 구봉, 우계, 율곡 세 사람의 교유는 막역하기로 널리 알려져, 일본에서까지도 송대의 주자, 장남현, 여동래의 강마지교에 비유될 정도였으며, 이런 연유로 세 사람의 친필 서한을 묶어 ‘삼현수간’이라는 제목으로 펴내기도 했다.(김창경, 「삼현수간을 통해서 본 구봉·우계·율곡의 도의지교와 학문교류」, 『잊혀진 유학자 구봉 송익필의 학문과 사상』, 구봉문화학술원, 2016.361쪽)

14) 송익필의 예학은 심오한 철학적 탐구를 통하여 얻어진 ‘천리’를 구체적인 현실의 문물제도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行用을 뒷받침하는 본원문제로서의 성리학, 특히 심성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음은 당연한 일이다..... 부친의 셋을 수 없는 파오는 송익필로 하여금 인간의 성정이라든지 선악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하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착한 본성대로 살아나갈 수 있을지 그 길을 모색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황의동, 「역경 속의 진유 구봉 송익필」, 『잊혀진 유학자 구봉 송익필의 학문과 사상』, 구봉문화학술원, 2016.48-49쪽)

을 통해서 신분상승을 위한 것이다. 자신의 재능(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신분적 한계를 사대부가와의 혼인을 통해서 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一賤則賤(경국대전)의 법을 따져보면 송구봉의 이러한 제안이 현실적인 효력은 없었을 것이다. 설화 속에서 송구봉의 통혼 요청은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한 方便인 동시에, 평생을 함께한 친구라도 넘을 수 없는 신분제의 엄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¹⁵⁾. 설화에서 진단하는 8년 임진왜란의 원인은 ‘위신, 수치, 체면’ 때문이며 명분싸움으로 ‘인제’들을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송구봉은 임진왜란과 맞물려 제대로 된 경륜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중국’으로 떠나버린 대표적 ‘인물’인 셈이다. 율곡과의 통혼 요청은 전쟁이라는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질 수 없었던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주고 있는 일화다. 송구봉에게 율곡과 같은 道友로도, 전쟁과 같은 극적 상황에서도 무너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신분’의 문제였다.

4.3 종합형 : 眼+(對+食)+短縮談·거북선+(婚)+中 - 노비 영웅 송구봉의 좌절

종합형은 송구봉 전설의 역사적 기록에서 언급되는 화소들이 모두 결합된

-
- 15) 구봉과 우계와 율곡, 세 사람은 나이도 비슷하고 본향도 같은 지역일 뿐 아니라, 도학을 함께 한 도우로서 평생 돈독한 우정을 지니며 살았다. 나이로 보면 구봉이 우계보다 한 살 많고 율곡보다는 두 살 더 많았다. 세상을 떠난 해수로 보면 율곡이 49세로 가장 먼저 타계했고, 우계는 65세, 구봉은 66세로 1년차로 세상을 떠났다. 구봉은 경기도 파주 교하 구봉산 아래에서 성장했고, 율곡은 강원도 강릉 외가에서 태어났으나 본가가 경기도 파주 율곡촌이었고, 우계 또한 경기도 파주 우계에서 성장했으므로 지역적 연고가 거의 같았다. 무엇보다 나이가 비슷하고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도학에 뜻을 두고 성장했다는 점에서 세 사람의 우정은 평생 변함이 없었고, 상호 격려하고 충고하면서 조선의 큰 유학자로 대성하였다. 특히 구봉은 우계와 율곡과는 달리 중년 이후 천민의 신분으로 환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의 돈독한 우의가 지속되었으며, 각기 다른 개성과 기질 그리고 학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변함없는 우정을 유지한 것은 매우 이채로운 일이다.(김창경, 전계서, 364-365쪽)

유형으로, 1984년 공주에서 채록된 작품이 해당된다. 기본형인 對와 확장형에 식사대접(食)과 혼인제안(婚) 화소가 주를 이루며, 임란활약담과 중국망명 이야기가 삽입되어 송구봉의 빛나는 업적과 좌절을 연결시키고 있다. 종합형에만 결합된 새로운 화소는 안광제압(眼)과 임란활약담이다. 이 두 가지의 화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4.3.1. 眼 : 구봉의 눈빛에 임금이 굴복하다.

구봉과 임금의 대면은 불가능하다. 송구봉은 20대에 정거를 당했기에 벼슬을 하지 못했다. 그가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고 서인의 모주라는 평을 들어야 했던 이유는 그의 친구들인 율곡이나 송강 등이 서인의 실력가로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구봉의 실력은 별시에 합격하면서 명성을 얻고 이후 글 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여실하게 표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설화처럼 명종 혹은 선조를 대면한 일은 없었다. 이 내용 역시 완벽한 허구다. 율곡이 그를 천거하며 임금에게 눈을 감으라고 요구하고 구봉의 눈빛에 놀라 뒤로 넘어졌다는 이야기도 근거 없는 말이다. 이러한 허구적 이야기는 구봉을 등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등장한다. 구봉의 눈빛에 놀란, 눈빛에 겁을 먹은 임금이 서출을 근거로 재능을 펼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귀결이다. 구봉은 이에 중국으로 떠나고 만다. 이 화소는 구봉 설화를 지탱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것에 대한 반증으로 쓰인다.

구봉의 강렬한 ‘눈빛’은 시대를 꿰뚫는 능력의 외적 발현이다. 그런데 그 능력은 노비에게는 지나친 것이다. 구봉의 삶을 오늘날 기념하게 하는 것도 그의 뛰어난 사상이지만, 구봉의 삶을 굴곡지게 만든 것도 ‘노비’가 지닌 지나친 ‘능력’인 것이다. 설화 속의 구봉은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조선을 떠나 중국행을 선택한다. 구봉의 중국행은 시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사는 불운한 존재들의 정치 없는 삶을 대변해준다. 이전의 설화가 구봉의 개인사의 설화적 변용이라고 한다면, 구봉의 강렬한 눈

빛 화소는 구봉의 개인사에 대한 민중적 해석이 가미된 것이다. 민중이 기억하는 송구봉은 노비라는 한계에 부딪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가야만 했던 비운의 천재인 것이다. 그의 눈빛은 임금을 기절시킬 만큼 강렬했는데도 말이다.

4.3.2. 임진왜란에 참여하여 활약하다.

송구봉은 임진왜란 동안에 유배와 해배를 겪는다. 기축옥사를 통해 실권을 잡은 정철이 선조에게 왕세자 책봉을 제안하며 벌어진 사태에 연류된 것이다. 유배에서는 풀려났지만 전쟁 상황에서 제대로 된 주거지를 얻을 수도 없었다. 이미 율곡은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정철과 형제들마저 연달아 세상을 떠났다. 송구봉에게 임진왜란은 전쟁의 참혹함과 함께 개인적인 슬픔이 계속되는 시간이었다. 어쩌면 임진왜란이 종결되고 성혼과 함께 일 년 만에 생을 마감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설화의 언중들은 송구봉을 난세의 영웅으로 기념한다. 특히 명나라 장수인 이여송과 대적하고 그의 부인을 매질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여송은 한국에 비범한 인재가 나올까 두려워하여 풍수명당을 쇠말뚝으로 박아서 단혈하는 인물로 등장한다.¹⁶⁾ 구봉이 임진왜란에 활약을 했다면 8개월 만에 끝냈을 것이라는 언급이 증산도 경전에 써있다고 한다.¹⁷⁾ 어린 이순신과의 조우나 거북선의 구조를 결정해주는 일화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여송과 대적하고 이여송의 부인을 매질하는 내용은 언뜻 보면 임진왜란을 평정하기 위한 활약처럼 보이지만, 임진왜란의 책임을 중국인 파병장수에게서 찾는 것도 모순이다. 오히려 송구봉과 이여송의 대면은 인재의 출현을 막는 이여송에 대한 징치라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을 해결할 만큼의 능력이 있지만 서열이라는 이유로 등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은 것이며, 거북선과 결부된 일화는 그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시킨 것

16) 권도경, 『한국인물전설과 역사』, 박이정, 2014, 11쪽

17) <http://www.jsd.or.kr/?c=masters/dojeon/695&p=9&uid=13060>

이다.

죽기 십여 년 전의, 말년의 송구봉에게 임진왜란은 가혹한 시기였다. 그런데 언중은 임진왜란과 송구봉의 영웅적 활약을 결부시켜 기억하고 있다. 전쟁은 기존의 가치가 붕괴되는 현장이다. 임금이 도성을 비우고 피신을 가기도 하고 생존을 위한 모든 시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목숨’과 ‘가치’에서 실존적 선택을 해야 하는 비상사태이다. 구봉의 영웅적 활약은 그가 지니고 있는 운명적 복합성에서 비롯된다. 전쟁의 가치 파괴적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인물은 기존의 사회질서 속에서 보호받던 자들이 아니다. 명문자제에서 추노로, 유배와 해배, 죽음과 이별, 아버지 송사련의 부관참시, 동인과 서인의 공격과 방어 등의 현장을 아울렀던 구봉의 이력은 전쟁이라는 비상사태를 냉철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자질인 것이다. 실제 전쟁에서 세운 공으로 면천이 가능했던 시대다. 임진왜란에서의 송구봉의 활약은 노비로 태어난 송구봉이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다 그러나 이본에 따라서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송구봉은 울곡과의 통혼을 거절당해 중국으로 떠나는 좌절도 겪는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좌절한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켜 주는 송구봉 부친의 용꿈이 부연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봉설화는 두 가지 테마가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송구봉이 노비라는 사실이다. 실제의 그가 명문 자제로 태어나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환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설화에서는 그는 ‘노비’라고 강조한다. 노비라는 그의 신분은 탁월한 능력과 함께 극적으로 부각된다. 구전 구봉 설화의 핵심은 태생적 한계를 지닌 구봉이 양반을 능가하는 자질을 지니고 있었으나, 등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가 환천되는 과정이 아버지의 업보를 대신 치르는 것이었기에 더욱 극적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화에서는 가족사에 대한 언급은 자세하지 않다. 오히려 흥길동이 지니고 있는 비극적 영웅성의 서막을 여는 흥판서의 태몽처럼 송구봉 부친의 용꿈이 설정되기도 한다.

구봉의 신분이 미천하기에, 그가 당대의 거유들과 대등한 교류를 맺었다는 사실, 임금을 기절시킬 만큼의 강렬한 눈빛을 소유했다는 사실, 울곡을

능가할 실력을 지녔다는 사실과 모친의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모든 일화가 그의 비범함을 돋보이게 해준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끝까지 증명되지 못하고 만다. 임진왜란 활약담은 실제 그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활약은 거북선 제작을 지도하는 보조의 역할부터 이여송의 아내를 매질하는 식의 극적 설정도 그렇다. 구봉설화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인물전설에서부터 상상력으로 구성된 민담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그러나 구봉설화의 생명력은 태생적·사회적·문화적·종교적 등의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설화 민중 속에서 ‘아쉬움’으로 발현한다. 이러한 아쉬움은 미완의 혁명이 아기장수설화과도 통한다. 부모의 실수로 혁명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장수로 태어났지만 부모에 의해 살해당하는 비극적 설화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범범한 사람들의 여한을 반영해준다.

앞서 제시한 20개의 화소는 지금까지 살펴본 5개 유형에 종속적인 기능을 한다. 태몽은 흥길동전의 출생 내력과 흡사하게 전승되어 송구봉의 어머니가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이와 유사한 화소가 야담류에 전하는 ‘困’화소이다.評은 엄밀히 말해서 화소라기보다는 송구봉에 관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송구봉 전설의 배경의 역할을 한다. 眼화소는 다양한 의미로 변형되고 있다. 울곡이 송구봉의 안광에 놀라 굴복하여 교제가 시작되지만 입금을 놀라게 해서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송구봉의 기개와 영웅성을 보여주는 화소다. 이런 유형의 화소로는 양반친구들을 하대하는 내용과 연결된다. 역적으로 모함받고 중국으로 간다거나(中) 종적을 알 수 없다(終)는 화소는 모두 송구봉이 처한 현실 속의 좌절을 의미해준다. 송구봉의 시적 능력은 설화 속에서 제시되는 신분적 제약과 울분이 문학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송구봉 전설 중에 최근에 채록된 ‘兒話’는 구봉 송익필의 역사적 인물로서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구연자의 발음이나 기억이 온전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어린 송구봉이 자신의 집에서 뻥어나간 복숭아를 따먹는 정승택에 찾아가 담판을 짓는다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이야기는 오성과 한음, 김인후 등의 역사적 인물담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다. 당진에 묘비가 세워지면서 전승되는 ‘묘비’화소는

송구봉의 역사적 위상을 기억해주는 구체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 구봉 송익필 전설의 설화적 의의

지금까지 역사적 인물인 구봉 송익필의 삶이 설화민중에게 어떤 식으로 전승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구봉 송익필은 동서당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송익필의 활약은 사대부 집안의 인물들과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송익필은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입신양명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정치적 변동 속에서 환천당하는 고통을 겪고 노비 신분으로 생을 마감한다.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는 송익필의 이러한 삶은 설화를 통해서 자기 운명과 의연하게 대결하는 ‘영웅’적 인물로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송익필의 삶은 동인과 서인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 기축옥사를 기획한 ‘서인의 모주’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 기축옥사는 역사적으로 동인 선비들의 몰락과 서인의 득세를 가져온 사화이다. 동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송익필은 정적이자 숙적이다. 특히 기축옥사의 싹탄이었던 ‘정여립’은 전복사람이다. 진안 죽도는 정여립이 관군과 대치하다 자결한 곳이라는 전설이 있는 곳이다. 송익필의 자로 지어졌다는 운장산은 죽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복의 명산이다. 설화의 현장에서는 기축옥사의 정적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설화의 언중에게 송구봉은 뛰어난 자질을 얻었지만 신분적 질곡에 갇힌 영웅일 뿐, 동서분당의 핵심 인물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가하면 정여립이야기 역시 정여립의 혁명사상에 대한 기림이나 아쉬움보다는 정여립의 악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당쟁사의 비중과 상관없이 송익필은 약자의 삶을 살았다. 그의 정치적 경륜이나 학문적 성취로 자신이 현실적으로 누린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설화를 통해 확인된 언중들의 송익필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본다면, 송구봉은 전쟁의 상황에서도 극복하지 못한 ‘신분제’의 질곡에 갇힌 노비출신 영웅으로서의 면모가 강하다. 이것은 ‘서인’

의 모주라는 기록상의 평가와 대조된다. 그리고 송구봉의 친구였던 이이, 성훈, 정철 등은 모두 역사적 위인으로 족적을 남긴 인물이지만, 양반집 환경에서 태어나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송익필은 임종의 순간까지 도망노비로 쫓기는 신세였다. 기축옥사의 두 주인공인 송익필과 정여립은 역사적으로 정적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설화를 통해 실패한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다. 송익필의 노비라는 조건은 태생적 한계에 절망하는 범속凡俗한 개인들에게 위로로 다가오며, 정여립이 꿈꾸었던 역적모의 혹은 체제 전복의 시도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민중적 소망이 담긴 화소다. 이런 점에서 기축옥사를 기점으로 ‘反逆鄉’으로 낙인찍혔다고 하는 지역에서 전승되는 송익필의 ‘운장산’과 정여립의 ‘죽도’는 이미 두 사람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색깔과 상관없이, 약자들의 기억 속에서 ‘영웅’으로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운장산의 이름을 둘러싸고 송구봉의 영향력을 지워야 한다거나 정여립의 대동사상에 관한 포폄褒貶은 설화적 상상력과는 거리가 멀다. 설화 속에 그려진 두 사람은 모두 실패한 영웅이다. 그들이 넘어서지 못한 한계는 ‘신분’이고 ‘왕조’다. 설화의 민중들이 기억하는 송구봉은 능력이 과도하여 시대와 불화한 영웅이고, 정여립은 내적 자질의 부족으로 큰 뜻을 이루지 못한 영웅이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이이, 선조, 성훈, 정철처럼 주류의 역사에 기념되는 인물이 되지 못했다. 이들은 모두 설화의 언중들이 기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약자성’을 공유한다. 정여립과 송익필은 역사적 정적으로 기록되지만, 설화 속에서는 개별적으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의 삶을 역사적인 기록에 꿰어 맞추며 당파성을 가려내는 것은 설화적 세계관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참고문헌

- 구구봉문화학술원, 『잊혀진 유학자 구봉 송익필의 학문과 사상』, 구구봉문화학술원, 2016.
- 권도경, 『한국인물전설과 역사』, 박이정, 2014.
- 김창경, 『구봉 송익필의 도학사상』, 책미래, 2014.
- 김창경, 「삼현수간을 통해서 본 구봉·우계·율곡의 도의지교와 학문교류」, 『잊혀진 유학자 구봉 송익필의 학문과 사상』, 구구봉문화학술원, 2016
- 노승구, 『전북의 산500』, 신아, 2003.
- 성태용, 「구봉 송익필의 철학 사상 -수양론을 중심으로-」, 『잊혀진 유학자 구봉 송익필의 학문과 사상』, 구구봉문화학술원, 2016
- 신정일, 『지위진 이름 정여립』, 가람기획, 2003.
- 이중호, 구봉송익필, 일지사, 1999.
- 이한우, 『조선의 숨은 왕』, 해냄, 2010.
- 전라북도, 『전설지』, 1990. 198면
- 전북도민일보, 『우리고장 명산 순례』, 2008.
- 진안군, 『진안군사』, 1992.
- 진안문화원, 『진안군향토문화백과사전』, 2004.
- 한기범, 「구봉 송익필의 예학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60권,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 황인덕, 「전설로 구현된 송구봉의 인물상과 그 의의」, 인문학연구101,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 황의동, 「역경 속의 진유 구봉 송익필」, 『잊혀진 유학자 구봉 송익필의 학문과 사상』, 구구봉문화학술원 편저, 책미래, 2016.

<http://www.jsd.or.kr/?c=masters/dojeon/695&p=9&uid=13060>

【Abstracts】

The type of narrative and Faction historical meaning of Song-gubong legend

Lee, Jung hoon

Songgubong is a person in the mid-Choseon Dynasty, but he is a person who is exalted as a teacher of four generations. However, the life of Songbong was a series of trials of 'returning' due to the environment and political changes born in prestige. There was also a political upheaval in the era where he lived, such as a Sinsamuok, Kichukoksa the beginning of Parts. Songgubong also shared his friendship with YulGon, Sounhorn in his life.

This paper examines the narrative style of the Songgwon legend, who was a real person of the Choseon Dynasty, and examines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Gubong legend. In this paper, 40 pieces of Songbong were analyzed. So I made 20 pixels and 5 narrative types. The basic form of the Songgwangbong legend is 'the exchange between the man and the gongbong - the complaints of the surrounding men - Songbongbang face to face and overwhelming'. This basic type is expanded to an anger that strengthens Songbong's greatness, an anecdote that worsens Songbong's desire, and an anger that emphasizes the misery of Songbongbang. Following the basic type and the extended type, the comprehensive type is combined with the active play. Actually, Songbong was in exile and could not participate in the war. However, the legendary Songbong is short enough to shorten the duration of the

imprisonment, or to give the Turtle Ship to Yi Soon Shin. The story of the ending of the Imran in a few months if it has been used properly has been handed down on the Internet. Song Hyung-bong, who is a politically talented person, plays an active role as a novi in the story.

Songbong is a "hero" who escapes from the constraint of "novi" and interacts with them in a similar way, controlling them with "eyes" and charisma. Song Jung - bong 's performance succumbs to Lee Yong Song and controls Yulgok and Yi Soon Shin. In addition, the legend of Jinan, which can be said to be the scene of Ogasaki, is still handed down to the dignity of Songbong. The evaluation of the Songbong who made a stroke of the company is interpreted as a political sacrifice in narrative. Compared to the spiritual virtue of the person who interacted with him, the marriage, and Jungchol, Songbong was the one who was able to withstand the years of vigor due to the occasional ox. The meaning of the Songgwon legend in the Conflict is that, apart from the partisan lessons that had to be taken from the existing records, the people are worshipping him as the epitome of the great weak which is excluded from real power. I hope that this legend will make it possible to look at the existing evaluation from a new angle.

Key words: Song Ku-bong, Gichuk-oxsa, Jeong Yeo-rip, Mt. Unjongsan, Song Ik Pil, Jinan, Chounbuk, Joseon Dynasty, Dong-in (East Faction), Seo-in (West Faction).

이 논문은 2018년 2월 1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3월 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8년 3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